

DAC 상주대표회의 결과

I. 핵심요지

- 금년도 개발각료회의(HLM)를 개발환경장관 합동회의(4.4)와 연계하여 4.4-5간 개최하여 원조규모 확대, 취약국가, 빈곤친화적 성장,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 예정인 바, 우리 대표단 참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의참가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금년도 HLM은 작년말 수립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여타 선진공여국의 개발원조정책 동향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판단됨.
- WTO 홍콩각료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OECD 사무국의 scoping paper 관련, 우리측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시 바람.

II. 상세논의사항

1. 개발각료회의(HLM) 추진방안

■ 4.4(화) 일정

- 오전, 오후 : 개발환경장관 합동회의 개최
(기 결정사항)
- 수석대표 만찬부터 HLM 회의를 시작하되, 만찬의 성격은 비공식회의로 함.
- 만찬의제 관련, 의장은 유엔 ECOSOC 개발협력포럼 및 몬테레이+5회의(카타르)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다수 대표들이 동 만찬은 하루종일 개발환경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후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여러 이슈 보다는 하나의 이슈에 대하여 편안하게 논의토록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2월 상주대표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4.5(수) 오전회의

- 오전회의 의제로 의장은 원조규모 확대에 대하여 논의하되, 세부사항으로서 △2005년

ODA 규모, △ODA 대상국 기준(country eligibility), △non-DAC 공여국과의 관계, △작년 12월 개최 '결과를 위한 규모확대' 회의 이후 진전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의함.

- 일부 참석자들은(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원조규모 확대의 수단으로서 그간 수차 제기해왔던 '혁신적 ODA 재정수단' 및 이민(migration), 송금(remittances)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민, 송금 문제는 ODA 규모 확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감안, 희망하는 국가에 한해 오후의제(Pro-Poor Growth) 논의시 개도국의 빈곤 퇴치 수단의 하나로 송금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함.
- 오전회의의 형식과 관련, 의장은 수석대표 단독 참석 또는 수석대표+1로 참가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이 수행 참가인원을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후속조치 추진에 유리하고, 수석대표간 협의는 오만한 계기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2월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4.5(수) 오찬회의

-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관련, 공여국간 공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되 외부강사를 초청하기로 하였으며,
- 일부 국가들은(독일, 일본 등) 일부 취약국가에서 non-DAC 공여국도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 공여국간 공조방안에

non-DAC 공여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주장함.

■ 4.5(수) 오후회의

-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및 모범적인 인도적 지원(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빈곤친화적 성장 의제와 관련, 빈곤작업반(POVNET)이 그간 작업해 온 정책문서를 채택하고, 향후 공여국들의 원조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오후회의 두 번째 의제 관련, 스톡홀름원칙에 대해 승인하고 최근의 긴급재난으로부터 얻어진 교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장 제안에 대체로 동의함.

2. 홍콩개최 WTO 각료회의 결과

- 사무국은 홍콩각료회의의 선언문에서 언급된 '무역을 위한 원조'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OECD가 WTO내 설립될 Task Force에 '무역을 위한 원조'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함을 감안 사무국이 준비한 scoping paper를 검토하였음.

- 다수 참석자들은(미, 영, 캐나다 등) OECD가 너무 앞서나가기보다는 WTO와 보조를 맞추면서 작업을 진행하되, 작업의 범위는 △DAC 공여국이 무역을 위한 원조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그간 시행된 무역을 위한 원조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경험은 무엇인지, △향후 개도

국들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당초 사무국이 제시한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위 설정, △무역을 위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제외되었음.

- 아울러 사무국은 회원국이 scoping paper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무역위원회의 Electronic Discussion Group(EDG)에 서면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3. ODA를 이용한 개도국 투자 촉진방안

- 개발원조위원회는 ODA를 이용하여 대개도국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작년 MCM 이래로 검토하고 있는 바, 사무국은 공여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지침을 제시함.
 - 원조의 분산을 줄이라 : 국가별 분야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
 - 개도국의 능력을 배양하라 :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들의 평가 및 결과 모니터 능력
 - 국내투자 결정요인에 유의하라
 - 개도국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기회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주라
 - 기업 지원시 직접적 보조금 방식을 피하고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하라
 - 정부와 민간기업간 대화를 촉진하라
- 다수 참석자들은 사무국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부분적으로 금융부문의 중요성,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 정책일관성에 대한

언급, 지하 경제(informal economy)에 대한 언급 등을 강화 또는 추가할 것을 주문한 바, 3월 회의시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사무국은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2.1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4. 동료심사(peer review) 방법론

- 사무국은 회원국의 원조정책 동료심사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료심사 내용 및 학습지침(DAC Peer Review Content and Learning Guide)'이라는 문서를 작성중인 바, 동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다수 참석자들은 사무국 초안의 내용이 훌륭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한편 일본은 다수 코멘트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특히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실적을 모니터하는 것과 관련 여타 공여국과 비교하겠다는 것은 당초 합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동 지침은 우리의 원조정책 및 원조현황을 자체적으로 심사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도 동 문서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2007-08년도 사업계획

- DAC는 작년 11월 이래 2007-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은 이미 합의한 사항임.
 - 새로운 자발적 기여금 관리시스템은 2007년

부터 적용

- 사업계획에 대하여 먼저 합의하고, 이후에 필요시 산하 작업반 통폐합 실시
-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원칙
- 핵심 산출물로 △DAC 정기회의 지원, △연례보고서 및 통계 작성, △동료심사 및 파리 선언 모니터링 사업에 합의(2005.12 SLM 회의시 합의)

- 회원국 및 산하작업반은 1.31까지 산출결과물(output results)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2.14 DAC 정기회의에서 사업우선순위리스트를 잠정 채택하고, 3월 중순까지 회원국의 ranking 작업을 받아서 4-5월중 사업계획안을 최종 수립 예정
- 한편 사무국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6개) 및 소요액(총 159만유로)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원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작년에 건의한 바 있는 DAC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지원(non-DAC 공여국과의 정책대화분야에 약 5만불 지원)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6. 의장, 부의장 선출 및 행정사항

- Richard Manning 현 의장이 단독 출마하여 재선되었고, 부의장으로는 네덜란드의 Jeroen Verheul, 미국의 George Carner 및 뉴질랜드의 Stephanie Lee 대표 등 총 3인이 출마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선출되었음.
- 작년 10월, 11월 상주대표회의 및 12월 SLM 회의의 논의결과요약 관련, 사무국 초안을 일부 수정한 후에 채택함.
- 빈곤작업반(POVNET)의 11월 회의결과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함.

[자료 : 주오이시디 대표부]